

# 신차 대박 행진...글로벌 '톱10' 도약

## 회고 2010

### 7기아차 50만대 재팬

올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스포티지R'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질주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쏘울 대박'에 이어 올해 3월 신차 '스포티지R'을 내놓고 2개월 연속 월 생산 신기록 경신이라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든든한 배경이 됐다. 20년만에 '무분규 임단협'을 이뤘고, 50만대 재팬 사업도 노사 합의로 본격 궤도에 올려놨다. 연말이면 사상 첫 40만대 돌파도 거뜬해 보인다.

◇두 달 연속 월 생산 신기록엔 40만대 돌파 거론=기아차는 지난 14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생산·판매 200만대를 돌파했다. 내수 45만7783대 수출 154만7043대 등 총 200만4826대를 판매했고, 국내 공장에서 132만5136대 해외 공장 67만6222대 등 총 200만1358대를

## 상생 노사관계 바탕 양산체제 가동 광주 수출 100억달러 재진입 전인

생산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프랑스 르노를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섰다. 기아차는 올해 말까지 생산·판매 모두 2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톱10' 진입에는 글로벌공장장으로 성장한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팬 사업이 큰 힘이 됐다. 50만대 재팬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광주공장은 2개월 연속 월별 생산 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 10월 4만2250대를 생산해 2006년 11월(4만3000대) 이후 48개월만에 4만대를 넘어서며 월간 생산량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어 11월에는 4만8227대를 생산, 한 달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들어 11월 말까지 광주공장의 누적 생산량은 36만4000여대로 그동안 연간 생산 최고 기록이었던

2007년의 34만5689대를 1만8000여대 초과했다. 수출이 14만3000대, 스포티지R 9만5000대, 봉고트럭 8만3000대, 뉴카렌스 4만여대 등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당분간 광주공장의 월별 생산 신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목표인 연간 40만대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매출액도 지난해 5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 7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역내총생산(GRDP) 22조55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지역 경제에서 기아차의 절대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생의 노사관계, 글로벌공장도약 계기=신기록 행진은 노사 합의에 따른 50만대 양산체제의 본격 가동이 배경이다.

지난 2월 노사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탄 기아차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팬 사업은 3월 스포티지R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지난 6월 광주 2공장의 스포티지R과 쏘울 혼부 생산 및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35대에서 42대 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난 9월에는 1공장의 쏘울 생산을 시간당 37대에서 42대로 증산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0만대 생산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은 기아차의 수출전진기지 글로벌공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중심으로 자리한 250여 주요 협력사들의 일감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윤희유 역할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수출 100억달러 재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주요 경제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디자인·글로벌 경영을 통해 50만대 생산이라는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시민비상대책회의와 재경여수항우회 시민·회원 200여명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여수세계박람회 미확보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수시민비상대책회의 제공>

## “여수박람회 예산 추경안에 반영하라”

### 시민비상대책회의 200여명 한나라당사·정부청사 앞 항의집회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시민비상대책회의는 22일 상경해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오후 5시에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여수시민과 재경 여수항우회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에서 비상대책위는 미확보된 정부 예산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람회 전시장 연계도로망 교통 관련

예산이 최종 확보되지 않으면 여수세계박람회 보이콧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수로 선정됐을 뿐 국가가 세계인과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한나라당 측과 정부 측에 전달했으며 오후 6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석자는 “정부에서 당연히 알아서 책정해야 할 예산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여수시민이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국가 행사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J프로젝트 구성지구 600억원 투자유치

### 전남도, SK D&D와 시니어빌리지 500세대 건립 4개업체 대불산단·광양신금 등에 340억 투자도

전남도의 핵심 사업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구성지구에 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SK D&D(대표 박주철)가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 D&D는 J프로젝트 구성지구 내 11만5000㎡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해 단지형 시니어 빌리지 500세대를 건립한다.

이 업체는 ㈜한양·보성건설과 공동 출자, 기존 콘크리트식 건물이 아닌 목조 및 스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경제성·친환경성·가변성을 모

두 겸비한 단지형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 약 2187만㎡에 조성되는 구성지구는 오는 2025년 사업 완료로 목표로 총 투자비 2조4375억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골프장 등의 관광시설과 바이오산업 단지, 주거용지 등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날 전남도는 SK D&D 외에 4개 기업과 3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한국고벨(대표 장호성)은 영암 대불산단내 2만5000㎡의 부지에 219억원을 투자해 호이스트 크레인을 제작기로 했다.

㈜두남컴텍(대표 김두한)은 광양 신금지역 2000㎡의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 착색안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슬라쉬(대표 박영준)는 영암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형공장에 48억원을 투자해 연간 10MW의 태양광발전 모듈을 생산, 미국과 동남아에 수출할 방침이다. ㈜해오름농업회사법인(대표 이연주)은 장흥읍 1만㎡의 부지에 23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막걸리 생산시설과 전봉주 체험장을 조성한다.

박준영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남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에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투자하게 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도서관 짓는다

### 화정동 중앙공원에...문광부 광주·전남 8곳 등 공공도서관 52곳 신설

광주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조감도)이 새로 건립되고 광주시립도서관 현대화, 전남 도립도서관 건립 등 내년 광주·전남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도서관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 262㎡ 규모로 건립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도서관은 내년 2월 착공해 2012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68억원과 시비 102억원 등 17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애초 사업비 350억원을



들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했으며, 기념도서관이 건립되면 동구 황금동 운동기념도서관은 내년 2월 착공해 고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구 운암도서관(4억원)이 새로 들어서고 광주시립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다.

남악신도시 도립도서관, 순천 통합도서관 건립에도 각각 22억, 1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산·어촌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보성 친환경도서관 건립(8억원, 신규), 장성 황룡행복도서관, 진도 농어촌도서관 건립에 각각 10억, 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문화부는 내년 도지역에 37곳, 농·산·어촌지역에 15곳 총 52곳의 공공도서관을 신설하고 친서민 생활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작은도서관”을 국내 66곳,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15곳을 설립하거나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도에도 전국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교정시설 등 소외지역의 2800개 기관에 240종, 48만권의 책을 보급하고 70개 도서관에 지역문학작가를 파견해 독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1(수) ~ 2011. 1.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

시인을 꿈꾸는 제즈 피아니스트 이노경 (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